고난의 축복 욥 42:1-6

고난이 축복이다. 언약의 권세이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수 있다.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뒤집어 주신다. 약속이다. 왜 고난으로 이렇게 하실까? 고난 없이 축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고난을 통해서 주시나 이유를 써놨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양하다. 욥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유였다라고 써 놨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은 예배 뿐 아니라 인생 살아갈때에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언약을 잡는 것이다. 안 잡으면 힘들다. 고생하고 방황한다. 답이 없다. 그 답이 창세기 3:15절이다. 내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는 것이 내용이다.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이 내게 언약이 되는 것이 남았다. 24시간 누려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남았다. 불신자는 이 말을 들으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는 인간 책임이다. 그러나 원인은 사단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 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단을 죽이러 아들을 보내겠다. 원인이 제거되어야 완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죄로 인해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완전한 답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길도 말해주셨다. 그것이 창세기 3:21 희생제사이다. 이 약속의 피제사를 계속하면 너의 인생중에 창세기 3:15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넘쳤다. 이 언약의 사람들의 인생중에는 기적이 연달아 계속 일어났다. 왜냐면 우리를 저주가운데로 몰고 가는 사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영안이 없으면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말이다. 영안이 있으면 이것 말고는 잡을 것이 없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기에 대한 많은 영웅들을 기록해놓았다. 이 약속의 피 창세기 3:21 희생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모자란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피제사의 원리는 아직도 살아 있다. 지금도 약속의 피의 권세로 역사한다. 그런데 그 피가 양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3:21절이다. 그러면 뱀의 머리가 깨지게 되어 있다. 무조건 이 약속의 피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연속적으로 되어진다. 오늘 욥도 이 언약의 피의 사람이었다. 욥만한 고난이 없고 시대적인 고난이 왔지만 두배의 축복으로 뒤집어 졌다. 이것이 약속의 피를 언약으로 잡은 자의 신분이다.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 언약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과 마음생각이 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가 내가 원하는것과 같아지면 응답은 연속되게 되어 있다. 이미 정복하게 된다. 여기서 조금 은혜가 더 주어지면 그것이 24인 것이다. 그러면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 이 시스템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 그러면 계속 기도되고 계속 응답된다. 실패하는 일이 없다. 운명이 뒤집어진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25를 누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림이 우주이다. 우주시대이기 때문에 우주를 살릴 기도를 해야한다. 우리의 그림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꺽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권세이다. 언약의 권세는 언약 가진자의 권세이다. 그것이 오늘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의미이다. 단지 고쳐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길게 써 놨다. 고난은 무작정 오는 것이 아니다. 축복의 이유가 있다. 축복을 받을 만큼 고쳐야 하기 때문에 치유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단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언약의 권세이다. 답을 내기 바란다.

1. 고난의 축복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다. 분량이 많다. 오늘 한가지 관점으로 보고 다음주에 또 다른 한 포인트를 보겠다. 욥은 고난이라는 관점으로 입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결론은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두배로 축복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욥에게도 살릴려고 고난 준 것이다. 축복을 두배로 주려니까 뭔가 하나 고쳐야 한다. 그것을 써 놓은 것이다. 욥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렇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 죽은 경우는 없다. 그러면 왜 고난을 통해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대게 고난 받는 중에 우리는 회개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한다.

내가 한때 5년간 이유없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30년전에 있던 일이 어느날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 뜨면 30분 이내에 불안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갔다. 그러다 잠잘 때 되면 괜찮아져서 잠은 잤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작이다. 어찌할 수가 없었다. 방법이 없다. 영적 문제 찾아오면. 하나님 시간표까지 가는 것이다. 그것이 5년만에 찾았다. 어느날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았다. 무릎꿇고 기도한적도 없고 회개도 안했다. 차타고 가다가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 10초만 해도 되었었다. 하루에 한 5-10번은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했는데, 불안이 언제 갔는지 가버렸다.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남았다. 5년간 이 고난을 통해 이것을 다시 심으려고 한 것이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 이야기를 그냥 처음 5년 시작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면 알아들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5년을 고통받은 후 깨닫고 나서 1년후 일이 있어서 되돌아 보니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 뿐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는 것. 욥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거치고 난 후에 본문 6절에 회개를 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티끌과 죄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하였다.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말을 다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다. 욥기가 뭐냐면 욥과 친구 세명 사이의 대화이다. 욥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온 것이다. 봄에는 병이 생겨서 기와로 긁고 있어다. 그러니 친구들이 와서 니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니까 욥은 나는 잘못한 것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친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냐는 것이었다.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42장이나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본문 마지막에 오늘 그 잘못 없다는 욥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 다 거두어 들인다는 것이다. 왜 그러면 생각을 굽혔는가가 포인트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했느냐는 것이다. 욥이 자신 있었던 것은 언약의 제사에 대해서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피에 대한 확신, 언약의 삶에 대해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친구 세명이 번갈아 가면서 니가 잘못한게 아니겠느냐 해도 필요 없다. 나는 잘못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는데로 다 했다는 것이다. 욥기 1장에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잔치를 한 후에 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각 아이들의 숫자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것이다. 보통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무리 이야기 해도 소용 없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대화가 끝이 없고 평생선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38장에서 시작하는데, 40장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온다. 40장 2절에 보면 트집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

냐? 대답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트집을 잡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한다고 말했다. 참 놀라운 단어이다. 40장 8절에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냐는 것이다. 이것은 더 충격적이다. 욥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보고 잘못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은 안했지만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속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이것은 굉장한 오류이다.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다. 언약적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친구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으로 가 버렸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하라는 것을 어김없이 다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했다. 하나도 어긴 것이 없고 율법 그대로 다 완전하게 했다. 그런데도 이런 고난이 왜 왔는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런 결론에 도달한것인 것이다. 이런 엄청난 결론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해결하기 전에는 안되는 것이다. 욥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자기는 생각에 나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 38장부터 말씀을 시작하셨다. 3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욥에게 내 앞에서 나의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하셨다. 질문을 칠십 몇 개를 했는데, 아무도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 4절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는 것이다.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너는 어디있었냐, 이런 질문 나올 때 아무도 대답할수 없는 것들이었다. 39장 1절에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니가 아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적이 있냐는 것이다. 39장 5절에는 들나귀를 누가 자유롭게 했냐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들을 70여가지를 했다. 욥이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자기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 아래에 인간인데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듣기만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것이다. 뭘 좀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배의 축복을 받은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대로 두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스토리이다.

욥기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두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결정했다. 욥이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 하셨다. 욥이 말한대로 하라고 했다. 그래도 욥 안에 두배 축복하기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그게 걸려서 안되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정도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배의 축복을 결정하시고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회의에 사단을 불렀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먼저 말을 시작하셨다. 너가 욥을 아느냐? 사단이 물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질문하고 사단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허용해서 고난이 시작된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없이 피주물에 어떤 일을 할수 없다. 항상 하나님의 허락 하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는 절대 못한다. 그래서 두배의 축복을 위해서 고난을 시작한 것이다. 이 일을 사단이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욥은 너무나 잘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교만이 너무 깊어서 들추어 내는데 이정도 고난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욥에게 그런 큰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두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된다. 고난중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언약 잡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왜냐면 계획대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언약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옛날에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가 했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이다. 교만이다. 언약을 가지고 고난에 도전해야 한다. 고난의 원인인 사단과 전쟁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연은 절대 없다. 욥이 우연히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필연이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두배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때에 아주 중요한 답도 얻고 귀중한 눈도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욥이 그래서 고백했다.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것이다. 눈이 열렸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주제는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 없다는 것이다. 있는데, 역전된다. 역전시킬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동안에 우리가 고난 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서게 되어 있고 박살내게 되어 있다. 운명도 없고 한계도 없다. 운명도 한계도 다 넘어서는 답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혈루증 여인이 12년간 피흘렸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도 다썼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옷에 손만 댔는데 끝났다. 홍해 앞에 섰다. 한계에 도달했다. 홍해가 열렸다. 왜냐면 가나안 땅 가야 하니까. 누가 가야 하는가? 약속의 피를 가진 사람. 약속의 피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어야 한다. 천국 열쇠 안열리는 문 없다. 믿고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이게 언약의 피이다. 욥은 피제사에 나름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형성된 교만을 몰랐다. 자기는 자신이 있는 줄 알았다. 잘하는 것인줄 알았다. 그것과 함께 속에 있던 교만을 잘 몰랐다. 회개하고 무릎꿇는 삶도 함께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고난을 받았지만 최고의 축복도 받았다. 고난을 생각하면 할 말이 많겠지만 축복을 생각하면 다 과정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것인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두배의 축복이 있다면 인생 괜찮은 것 아니겠는가? 고난을 받아도 큰 인생 되는 답을 가지고, 인생 끝났다면 할만한 것이다. 이것이 언약 가진 자의 권세인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왔을 때 답을 줄수 있어야 한다. 답은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줄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체험이 필요하다. 응답의 체험 뿐 아니라 고난의 체험도 필요하다. 그 고난이 변하여 응답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욥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는 아주 부자였다. 고난도 시대적으로 받았다. 온데 소문이 다 퍼졌다. 그리고 반대로 축복도 깜짝 놀랄 축복이다.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그 때에 욥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피로 그 시대의 시대적 증인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진짜 두배의 축복이다. 2백배 2천배의 축복이다. 고난이 있는 분들,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십자가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고 진짜 생명걸고 기도하기 바란다. 조금 말씀 안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한다. 욥처럼 다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배와 개인의 기도와 훈련이다. 욥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에 충만하기 바란다.